

## 에이직랜드, 슈퍼게이트와 AI VPU 개발 계약 체결

- ▶ Edge AI 생태계 강화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시장 다각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 ▶ AI VPU 첫 양산 사례 예고...국산 자율주행 AI 칩, 산업용 AI 시스템 등 실질적 기여할 것

<2025-04-29> 에이직랜드가 슈퍼게이트와 손잡고 엣지향 AI 생태계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주문형반도체(ASIC)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445090, 대표이사 이종민)가 슈퍼게이트(대표이사 심승필)와 VPU(Vision Processing Unit) 개발을 위한 턴키(Turn-key) 계약을 체결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105억 원 규모로, 양사는 협업을 통해 고성능 VPU 개발가속화로 엣지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본격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Vision AI 특화 칩의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업은 AI VPU 칩을 실제 양산하는 에이직랜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며, AI CCTV, 산업용 AI 시스템 등에 주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데이터 처리(Processing)와 신경망 처리 장치(NPU)의 최적화된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H/W) 통합 공급을 통해 고성능 AI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까지 단계적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VPU는 실시간 이미지 및 영상 인식, 딥러닝 추론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동시 다발적인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프레임워크 및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호환성을 기반으로 AI CCTV, 자율주행, 산업안전, 스마트시티, 보안, 의료, AR/VR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슈퍼게이트는 ARM ADP 공식 파트너이자, 2024년 글로벌스타 펍리스 30의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기업으로, 고성능 컴퓨팅(HPC) 및 비전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슈퍼게이트 심승필 대표이사는 "에이직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VPU 고도화 및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맞춤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비롯한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직랜드 이종민 대표이사는 "후공정까지 책임지는 턴키 서비스 계약은 당사의 기술 전문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성과로, 차세대 AI 칩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며 "엣지(Edge) AI 생태계에서의 슈퍼게이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